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김 성 일* 김 남 회

강릉대학교 교직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여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강릉과 속초 소재의 5개 고등학교 학생 414명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서봉연(1975)이 수정한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검사와 김윤희(1989)가 번안한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이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차이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형성되는 성격의 핵심적 특성으로 안정된 성인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서봉연(1993)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를 사춘기 동안의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하여 본능적 욕구와 자의식이 강해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확장이 요구되며,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당면하는 많은 양면적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고심하게 되

* kimsi@knusun.kangnung.ac.kr

고, 진로와 교우관계 등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개인의 자아가 자신의 인격체계의 3요소인 원초아·자아·초자아를 통합하는 방식에서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춘재 등(1988)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일관성·통일성과 시간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박아청(1996a; 1998)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인생의 목표·가치관 등에서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arcia(1980)는 여러 가지 충동·능력·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 내적·역동적 체계이며 이는 곧 자기구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하위요인으로 세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Guardo와 Bohan(서봉연, 1975)은 자아정체감을 4개의 차원으로 구별하여 개인이 인간이라고 느끼는 인간성 차원,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느끼는 성별 차원, 개인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느끼는 개별성 차원,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계속성 차원으로 나누었다. Grotevant와 Adams(1984)는 직업·정치·종교·삶의 방식의 관념적 영역과 우정·이성교제·성역할·여가활동의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Bennion과 Adams(1986)도 직업·종교·정치·생활철학·교우관계·이성관계·성역할·여가활동의 8개 영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박아청(1996b, 1998)은 주체성·자기수용·미래확신·목표지향·주도성·친밀성·정체감 유예·정체감 혼미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자기 참조적 심상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요소를 개인이 자신의 신념·가치·역할에서 지각하는 안정성과 목표지향성, 독특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인 대인관계와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 인식에 대한 일관성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서봉연(1975)은 Dignan(1965)의 분류에 자기 주장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8개 영역으로 확장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으로 택하였다.

한편, 정체감의 성차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아정체감의 성차가 없다는 연구가 있고(권혜진, 1993; 송설희, 1994; 윤명숙, 1989; 장휘숙, 2000; 홍성애, 1988), 남자가 높거나(문성숙, 1991; 한인미, 1984) 여자가 높다는 연구도(박완성, 1990)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에서는 성차를 보이고 있다. 박아청(198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와 직업영역에서 높은 정체감을 보였다고 하였고, 송설희(1994)는 종교관에서 여자의 정체감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Marcia(1980)도 가족과 성 관련 영역에서 여자의 정체감이 남자보다 높다고 하였다.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Hodgson & Fischer, 1979; Josselson et al, 1977; Thorbecke & Grotevant, 1982; Waterman & Nevid, 1977) 남자는 직업·정치·관념 영역에서 그리고 여자는 종교·대인관계·성역할에서 정체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정체감 탐색의 주 관심이 남자에게는 직업과 관념의 문제에 있는데 비해 여자에게는 결혼과 양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송명자(1995)도 청소년기 여자에게는 친밀감과 대인관계가 중시되고 남자에게는 자율과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홍성애(1988)는 자녀의 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윤명숙(1989)은 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대인역할 기대와 자기수용 및 자기인식에서, 김영애(1990)는 안정감

에서 높다고 하였으나, 권혜진(1993)과 김정희(1987)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정체감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더라도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체계적인 이론의 틀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마정건, 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정우와 이규원(1989)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과 전달 요소를 고려한 대화행동을 쌍방 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4유형으로 분류하였고, Gordon(1970)은 나 메시지(I-message)와 너 메시지(You-message)로 구분하였다. 권혜진(1993)은 Bernstein의 가족 역할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 유형을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되는 지위지향성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역할에 맞추어 융통성있는 개방적 양식을 사용하는 인성지향성으로 양분하였다. 또한 이원영(1991)은 Eric Berne의 의사거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에서 심리적 갈등이 없는 보완적 교류, 기대에 맞지 않는 반응이 교차할 때 나타나는 교차적 교류, 표면상 합리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잠재적 교류로 분류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미영(1989)은 Satir의 가족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토대로 부정적 의사소통을 회유형·비난형·평가형·혼란형의 4가지로 구별하였다.

한편, Ba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은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며, 문제형은 상대방을 불신하여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선택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정적인 면의 역기능적 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요시한 Barnes와 Olson(1985)의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고성혜: 1985; 김진희, 1989; 오연옥, 1987; 윤정명, 1983; 이향련, 1986; 장호선, 1986), 동성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김양숙, 1995; 방문희, 1991; 옥선화, 1987). 이와는 달리 이성부모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결과도 있다. 즉, 이석경(1987)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대화를 원하며 아버지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김정희(1987)는 모자간의 의사소통이 모녀간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권혜진(1993)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자녀에 대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Barnes와 Olson(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고기준, 1990; 권은정, 1996; 김진숙, 1983; 김진희, 1989; 오연옥, 1987; 옥선화, 1987), 부모의 학력과 의사소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권혜진, 1993; 김양숙, 1995; 김인희, 1994; 장호선, 198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이를 직접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개념에 통합될 수 있는 자아개념이나 자존심과의(송인섭, 1989)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시키고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존심도 고양된다(김양숙, 1995). 김인희(1994)와 권혜진(1993)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얘기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김정희(1987)도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석현양(1983)은 부모의 사회적 지향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의 자아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련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성숙(1991)은 부모와 청소년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강한 정체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강한 정체감은 남자의 경우에 아버지가 애정과 함께 적절한 통제를 하고 어머니가 부자간의 동일시를 지지할 때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모녀간의 동일시가 강할 때 나타났다. 이승국(1996)과 La Voie(1976)도 독립심을 촉구하고 제한이 적으며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의 청소년 자녀가 높은 정체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밖에 여러 연구에서도(송설희, 1994; Bourne, 1978; Campbell et al, 1984; Grotevant, 1983; Kroger & Haslett, 1987; Sabatelli & Mazor, 1985; Weinmann & Newcombe, 1990; Waterman, 1982) 부모가 수용적이고 일관된 훈육과 독립심을 허용함으로써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면 관념·종교·정치·직업·삶의 방식과 같은 영역에서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부모가 거부적이거나 지나치게 허용

적이면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체감 혼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영남(1989)은 아버지의 통제가 중간 정도일 때 남자의 자아정체감이 높으며 너무 엄격하면 정체감 형성에 지장을 가져오고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역할이 정체감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ignan(1965)의 연구에서는 모녀간의 동일시가 여대생의 정체감 형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문성숙(1991)의 연구에서도 정체감을 성취한 여고생들은 어머니가 친구처럼 대하고 아버지는 공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연구자들도(장휘숙, 1999; Adams et al, 1987; Enright et al, 1980; Rice, 1999) 아버지가 민주적·온정적이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할 때 자녀 모두의 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수용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성취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도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실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부족한 양적인 면을 질적으로 보충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최경순, 1992),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권혜진, 1993; 김진숙, 1983; 김정희, 1987; 오연옥, 1987; 이결남, 1989; 이경주, 1989; 이연숙, 1991; 윤현영, 1989),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아닌 가족 응집성과 적응(김진희, 1989), 자아개념(이경주, 1989; 이진용, 1990; 김양숙, 1995), 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

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자녀의 성별 및 부모의 학력별 차이와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강릉과 속초의 남녀고등학교 5개교에서 각 1-2개 반을 선정하였으며,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60명, 2학년 128명, 3학년 26명으로 전체 414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조사변인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조사대상의 변인별 분포

변인	구분	사례수	%
성	남자	183	44.2
	여자	231	55.8
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	10.9
	중학교 졸업 및 중퇴	75	18.1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183	44.2
	대학 졸업 이상	111	26.8
모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7	16.2
	중학교 졸업 및 중퇴	116	28.1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189	45.5
	대학 졸업 이상	42	10.2
계		414	100.0

성별로 보면 남학생 183명, 여학생 231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많았고,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보다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검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

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Dignan(1965)의 척도를 서봉연(1975)이 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8개 하위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반 정도는 부정적 진술문이다. 각 문항은 동의 정도에 따라 5단계 평정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 문항의 점수는 역산하여 점수범위는 64~3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α 계수로 산출된 검사의 신뢰도는 전체 .74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각 하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영역별 문항의 예는 표 2와 같다.

- 안정성 :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된 동질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
- 목표지향성 : 자신의 인생목표와 행동방향 및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
- 독특성 : 현재의 능력과 심리적·신체적 특성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상
- 대인역할 기대 :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상이한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다소 일시적·특징적인 여러 가지 자아상

표 2. 자아정체감 검사의 개요

하위영역	문항의 예
안정성	장래의 나는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목표지향성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을 정할 수 없다
독특성	나는 형을 좋아하지만 형과 같아지고 싶지는 않다
대인역할 기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쉽게 알아차린다
자기수용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자기주장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자기존재 인식	때때로 전혀 나답지 않은 일을 한다
대인관계	나는 친구들과 쉽게 친밀해진다

- 자기수용 :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자아상
- 자기주장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게 표명하는 태도와 경향성
- 자기존재 인식 : 자기 존재와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 대인관계 :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성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검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김윤희(198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보고하는 청소년용과 부모 자신이 직접 반응하는 부모용의 2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용을 이용하였다.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의도한 것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김양숙, 1995).

이 검사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방적 유형과 세대간의 의사소통에서 장애와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제형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10개 문항이 배정된 5단계 평정척도이다. 따라서 점수범위는 영역별로 10~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또는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검사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문항은 호칭만 다를

표 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지각검사의 개요

하위영역	문항의 예	α 계수	
		아버지	어머니
개방형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내 생각을 주저없이 의논한다	.82	.80
문제형	아버지(어머니)는 화를 낼 때 내게 모욕감을 주신다	.83	.80

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Barnes와 Olson(1985)이 1,841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검사의 신뢰도(α 계수)는 전체 .82이었으며, 김윤희(1989)의 조사에서는 .86,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별로 모두 .8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실시절차 및 결과처리

2종의 검사는 2000년 5월 하순에 해당학교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회수되었다. 470명에게 배부된 검사지는 455부가 회수되었고, 반응이 부실한 24부와 편부모 자녀 17명을 제외한 414부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결과분석은 우선 조사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후, 청소년의 성별에 의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와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t검정으로 검증하였고, 부모의 학력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와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유의있는 차이가 있을 때는 Duncan의 중다범위검정(multiple-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배경변인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표준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및 부모의 학력별 지각차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별 평균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형($t_{413} = 4.95, p < .001$)과 문제형($t_{413} = 5.19, p < .001$)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유의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더 자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성별로 볼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두 유형 모두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개방형과 문제형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의 개방형과 어머니 문제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버지의 문제형과 어머니의 개방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참조).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의 개방형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중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이 차이를 보여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문제형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이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개방적이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더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치와 차이

의사소통유형	남	여	계	t(412)
부-개방형	27.60 (4.56)	25.69 (4.92)	26.53 (4.85)	4.05***
문제형	26.18 (4.09)	25.34 (4.36)	25.72 (4.26)	1.98*
모-개방형	29.07 (4.15)	28.37 (4.20)	28.68 (4.19)	1.68
문제형	28.44 (3.75)	28.72 (4.37)	28.59 (4.11)	-.70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 p<.05, ***p<.001

표 5. 부모의 학력별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치와 차이

의사소통 유형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F(3,410)
부-개방형	24.34 (5.58)	27.19 (4.33)	26.28 (4.69)	27.36 (4.87)	4.87**
문제형	24.75 (4.22)	26.08 (4.16)	25.74 (4.36)	25.80 (4.15)	.96
모-개방형	27.89 (4.60)	28.32 (4.92)	28.93 (3.69)	29.87 (3.14)	2.44
문제형	29.32 (4.76)	28.49 (4.06)	28.05 (3.88)	27.07 (3.76)	3.01*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p<.05, **p<.01

자아정체감의 성별·부모의 학력별 차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전체 평균치는 181.63으로 5점 척도에서 2.84인 중간수준을 보였으며, 8개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와 대인역할 기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평균치가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별 평균치와 성별차이

하위영역	남	여	계	t(412)
안정성	20.08 (3.71)	19.67 (3.95)	19.86 (3.85)	1.06
목표지향성	20.82 (5.66)	18.98 (5.48)	19.80 (5.63)	3.34**
독특성	21.30 (3.67)	20.66 (3.81)	20.94 (3.76)	1.71
대인역할 기대	23.59 (3.72)	22.67 (3.95)	23.08 (3.88)	2.39*
자기수용	20.10 (4.27)	18.22 (4.52)	19.05 (4.51)	4.28***
자기주장	20.81 (4.10)	19.53 (4.21)	20.10 (4.21)	3.10**
자기존재 인식	20.29 (4.52)	20.21 (4.56)	20.25 (4.54)	.16
대인관계	23.29 (3.25)	23.05 (3.45)	23.16 (3.36)	.72
전체	185.16 (17.22)	178.11 (19.02)	181.63 (18.56)	3.90***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p<.05, **p<.01,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목표지향성,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이 4개 영역에서 모두 높았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평균치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별 자녀의 정체감 평균치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정체감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는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인식의 4개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인역할 기대와 자기존재 인식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이 더 높았으며, 자기수용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집단보다 대학 졸업이상인 집단이 더 높았고, 자기주장

에서 중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인식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자아정체감 평균치도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인식의 5개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목표 지향성과 대인역할 기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보다, 자기수용과 자기존재 인식에서 대학 졸업이상의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그리고 자기주장에서는 대학 졸업이상의 집단이 중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유의있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5개 영역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아버지의 학력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평균치와 차이

하위영역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F _(3,410)
안정성	19.89 (3.80)	19.69 (3.35)	19.68 (3.84)	20.23 (4.19)	.51
목표지향성	17.85 (5.64)	19.49 (5.53)	20.20 (5.29)	20.11 (6.11)	2.31
독특성	21.37 (4.08)	20.73 (3.87)	21.28 (3.62)	20.36 (3.74)	1.65
대인역할기대	21.49 (4.23)	22.73 (3.69)	23.18 (3.75)	23.79 (3.90)	4.10**
자기수용	17.64 (4.09)	18.86 (4.18)	18.88 (4.22)	20.03 (5.15)	3.39*
자기주장	19.31 (3.75)	18.99 (3.44)	20.44 (4.16)	20.61 (4.76)	3.23*
자기존재인식	18.45 (3.90)	20.59 (4.27)	20.07 (4.28)	21.03 (5.15)	3.74*
대인관계	23.43 (3.62)	22.87 (2.97)	23.10 (3.49)	23.33 (3.36)	2.39
전체	173.11 (15.69)	178.21 (17.23)	181.07 (19.67)	184.25 (18.05)	4.56**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p<.05, **p<.01

표 8. 어머니의 학력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평균치와 차이

하위영역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F _(3,410)
안정성	19.96 (3.51)	19.59 (3.82)	19.95 (3.92)	19.88 (4.18)	.23
목표지향성	19.62 (4.87)	18.45 (5.20)	20.43 (5.90)	20.78 (6.14)	3.53**
독특성	20.94 (3.80)	21.10 (3.86)	21.07 (3.63)	19.95 (3.97)	1.10
대인역할기대	21.72 (4.12)	22.44 (3.75)	23.65 (3.69)	24.32 (3.84)	6.82***
자기수용	18.51 (4.14)	18.48 (4.48)	19.15 (4.36)	21.12 (5.30)	3.99**
자기주장	19.37 (3.81)	19.43 (3.49)	20.56 (4.54)	20.96 (4.77)	3.03*
자기존재인식	19.61 (4.20)	19.81 (4.38)	20.34 (4.55)	21.91 (5.10)	2.73*
대인관계	22.70 (3.42)	23.11 (3.45)	23.36 (3.40)	23.16 (2.86)	.63
전체	176.15 (15.69)	177.75 (17.23)	183.45 (19.67)	187.21 (18.05)	5.90**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p<.05, **p<.01, ***p<.001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표 9와 같다. 자녀의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문제형이나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 목표지향성·대인역할 기대·자기수용·대인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문제형은 자녀의 자기존재 인식과 역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목표지향성·대인역할 기대·대인관계 영역과 정적 상관이 그리고 독특성과 자기존재 인식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문제형은 자기존재 인식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목표 지향성과 대인관계 및 대인역할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문제형

표 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상관계수

자아정체감 하위영역	아버지		어머니	
	개방형	문제형	개방형	문제형
안정성	-.01	-.07	.03	-.04
목표지향성	.15**	-.07	.11*	-.07
독특성	-.08	.05	-.16**	.02
대인역할기대	.26**	-.04	.16**	.05
자기수용	.14**	.01	.08	-.05
자기주장	.07	.01	-.02	-.02
자기존재인식	-.02	-.18**	-.14**	-.14**
대인관계	.10*	.04	.10*	.09
전체	.14**	-.08	-.09	-.06

*p<.05, **p<.01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기존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체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배경변인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변인	b	β	표준오차	t
성별	-5.13	-.13	1.81	-2.83**
부의 학력	1.71	.08	1.27	1.34
모의 학력	2.08	.09	1.35	1.54
부-개방형	.56	.14	.21	2.69**
문제형	-.65	-.15	.23	-2.80**
모-개방형	.37	.08	.24	1.56
문제형	-.45	-.10	.24	-1.88
$F_{(7,406)} = 7.03$			$R^2 = .108$	

**p<.01

7개 종속변인 중에서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의 성별과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서는 이미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정체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개방형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으로, 문제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7개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R^2)은 11% 정도이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1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검사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은 개방형과 문제형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가사를 수행하며 자녀양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자녀와의 접촉기회도 아버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자녀간의 성별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권혜진(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개방형과 문제형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도(김양숙, 1995; 김진희, 1989; 방문희, 1991; 옥선화, 1987) 부합되는 것으로 동성 부모에 대한 남학생의 정서적 애착에서 오는 유대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양숙, 1995).

부모의 학력별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이 증가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형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기준, 1990; 권은정, 1996; 김진숙, 1983; 김진희, 1989; 오연옥, 1987; 이석경, 1987; 이향련, 1986),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대화 형태를 조사한 정지자(1983)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으면 명령형이나 지위지향의 대화 형태를 사용하고 학력이 높으면 개인 지향형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

력이 높을수록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자녀와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일방적이거나 통제 위주의 언어가 아닌 사고 유도적이며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목표지향성·대인역할·자기수용·자기주장의 4개 하위영역에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도(문성숙, 1991; 박아청, 1984; 한인미, 1984; Josselson et al, 1977; Thorbecke & Grotevant, 1982)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희영(1986)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성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성의 자아정체감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에 선행하지만 여성은 반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옥분(1998)과 LaVoie(1976), Shulman과 Seiffge-Krenke(1997)도 여성에게는 친밀감과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고 남성에게는 자율과 성취 그리고 직업이 보다 중시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체감도 높고 자기수용·자기주장·자기존재 인식·대인역할 기대의 4개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김영애, 1990; 윤명숙, 1989; 홍성애, 1988)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행동과 감정의 모순점을 명료히 지적함으로써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예상한 바와 같이 긍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면 자녀의 목표지향성·대인관계·대인역할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기존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중다회귀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기가 되면 직업이나 인생의 목표와 같은 새로운 측면이 부가되어 대체로 어머니보다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직업을 접하는 아버지와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정체감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sley와 Montemayor (1997) 그리고 Enright 등 (1980)은 아버지의 영향이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훨씬 크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온정적인 격려가 자녀 모두의 정체감 탐색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 많은 연구(강란혜, 1990; 최경순, 1992; Lamb, 1997; Parke, 1981)에서도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유사하며, 어머니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자녀의 지적·사회적·도덕적 능력과 성역할 및 정서적 안정에 지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휘숙(2000)은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자녀의 정체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정체감의 독특성과 대인역할 기대에 의의있는 영향이 있으므로 개인적 신념이나 자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체감 유예 청소년이나 성인의 가치와 기대를 수용하는 정체감 유실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Parke(1981)도 부모 모두의 온정이 여성의 성정체감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아버지의 온정은 남자의 성 정체성을 향상시키며, 아버지가 가정에서 주도적이고 남아의 훈육에 적극적일 때 남아에게 남성적 유형이 확립되고 여아의 성 정체감 발달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아버지의 애정이 아들의 도구적·남성적 행동을 발달시키고 딸의 표현적·여성적 행동도 습득케 한다고 볼 수 있다(Biller & Borstelman, 1967; Hetherington, 1972; Johnson, 1963). 아버지가 어머니를 딸의 역할 모형으로 인정하며

딸의 여성적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아버지의 관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크기와 지역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연구대상도 확대하여 형제나 편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설희(1994)는 부모 부재 가정을 조사하여 자녀의 정체감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편모와 편부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결론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모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아들은 소극적이 되거나 과보상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딸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therington, 1966; McCord et al, 1962; Santrock, 1970, 1977). 끝으로, 자아정체감은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박아청, 1996b) 하위영역별 발달경향도 동일한지 확인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 역할 특성간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기준(1990). 모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85). **부모-자녀간의 대화**. 서울: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 권은정(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특성.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1989). Satir 가족치료 모델에 따른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희(1994).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정전(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숙(1991). 사회계층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자아 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연구**, 22(2), 83-98.
- 박아청(1996a).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박아청(1996b). 한국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완성(1990). 고교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문희(199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봉연(1993).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심리학** (pp. 57-81). 서울: 양서원.
- 석현양(1983). 가정의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오연옥(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1987). **자녀문제와 대책, 부모와 자녀의 대화**.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 윤명숙(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명(1983). 부모-자녀간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영(1989). 어머니의 의사소통수준과 자녀의 인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89).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경(1987).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국(199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91).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정우·이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7(3), 147-159.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향련(1986).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에 관한 일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지자(1983). 어머니의 대화형태와 언어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23-239.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인미(1984).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Dyk, P., & Bennion, L. D. (1987).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dentity formation. *Family Perspectives*, 21, 249-260.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6-447.
- Bennion, L. D.,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illier, H. B., & Borstelmann. L. J. (1967). Masculine development: An integrative review. *Merrill-Palmer Quarterly*, 13, 253-294.
- Bourne, E. (1978). The state of research on ego identity: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4), 371-392.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nright, R. D., Lapsley, D. K., Drivas, A. E., & Fehr, L. A. (1980). Par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529-54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David McKay.
- Grotevant, H. D. (1983). The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facilitation of identity formation

-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25-237.
- Grotevant, H. D., Adams, G. R. (198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to assess ego identity in adolescence: Validation and repl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5), 419-438.
- Hetherington, E. M. (1966). Effects of parental absence on sex-typed behavior in Negro and white preadolescen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87-91.
- Hetherington, E. M. (1972).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t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7, 313-326.
- Hodgson, J. W., & Fischer, J. L. (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1),
- Hosley, C. A., & Montemayor, R. (1997). Fathers and adolescent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162-178). New York: Wiley.
- Johnson, M. M. (1963). Sex role learning in the nuclear family. *Child Development*, 34, 319-333.
- Josselson, R., Greenberger, E., & McConochie, D. (1977). Phenomenological asp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145-167.
- Kroger, J., & Haslett, S. J. (1987).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1), 188-198.
- La Voie, J. C. (1976). Ego identity formation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4), 371-385.
- Lamb, M. E. (1997).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1-18). New York: Wile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cCord, J., McCord, W., & Thurber, E. (1962). Some effects of parental absence on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 361-369.
- Parke, R. D. (1981). *Fath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9th ed.). Boston: Allyn & Bacon.
- Sabatelli, R. M., & Mazor, A. (1985).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identity formation. *Adolescence*, 20(9), 619-633.
- Santrock, J. W. (1970). Paternal absence, sex-typing, and iden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264-272.
- Santrock, J. W. (1977).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sex-typed behaviors in male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0, 3-10.
- Shulman, S., & Seiffge-Krenke, I. (1997). *Fathers and adolescents*. London: Routledge.
- Thorbecke, W., & Grotevant, H. D. (1982).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interpersonal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6), 479-492.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aterman, C. K., & Nevid, J. S. (1977). Sex differences in the resolution of the identity cri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4), 337-342.
- Weinmann, L. L., & Newcombe, N. (1990). Relational aspects of identity: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0, 357-369.

Relations of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Ego-Identity Development

Sung-il Kim Nam-Hee Kim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factors that would make an effect on adolescents' identity and to offer directions for the adolescents' identity development. Subjects were 414 male and female highschool students in Kangnung and Sokcho. Male students communicated more with their fathers than female students did, while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not different in perceiving their communication with mother. The more educated the father was, the better the open communication was made with their child. As for the mother, the less educated the mother was, the more the problematic communication was made between mother and child. Male students had higher identity scores comparing to female students. And father's educ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sub-scale scores of personal relation, self-acceptance, self-expression, self-existence, and the total scores of identity, while mother's educ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sub-scale scores of goal-orientation, personal social role, self-acceptance, self-existence, and the total scores of identity. Father's open communica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oal-orientation and personal social role. Strangely enough, self-acceptance and personal relation were related to the open communication of father, and uniqueness was of mother. And the problematic communication of both parents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xistence. Based 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whic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identity of adolescents were gender and father's communication patterns.